

- 동해 ↔ 돛토리현(사카이미나토) 항로 재개 -
일본항로 시범운항 대표단 출장 결과보고

- 출장기간 : 2024.5.25.(토)~5.28.(화)/ 3박4일
- 출장지역 : 일본 돛토리현(사카이미나토)
- 출 장 자 : 이창수 의원, 안성준 의원
- 출장내용
 - 항로 활성화 및 양 지자체 우호 증진 · 관광 교류 협력 등 방안 모색



동 해 시 의 회

- 동해↔돗토리현(사카이미나토) 항로 재개 - 일본항로 시범운항 대표단 출장 결과보고

2019. 11 .27. 중단 이후 4년 8개월만에 재개 예정인 일본항로의 성공적 재개 준비를 위하여 이스턴드림호의 시범운항 시 우리시 대표단을 구성 및 방문, 정기항로 안정화를 도모하고 양국 지자체 우호 증진 및 관광교류 협력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일한 대표단의 결과 보고임

1.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24. 5. 25.(토) ~ 5.28.(화), 3박 4일
- 출장국가 : 일본 돗토리현(사카이미나토)
- 출장목적 : 항로 활성화 및 양 지자체 우호 증진 · 관광교류 협력 등 방안 모색
- 대표단 구성 : 13명(부시장님 외 12명)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구분
1	동해시	부시장	문영준	단장(총괄)
2	동해시의회	시의원	이창수	상호 교류협력 및 항로점검
3		시의원	안성준	
4		항만물류팀장	주정운	
5	동해시 (산업정책과)	주무관	김주성	
6		주무관	유은진	
7	동해시 (관광개발과)	관광마케팅팀장	김보혜	
8	문화관광재단	관광진흥팀장	공후식	
9	북방물류 산업진흥원	차장	김주휘	
10	지역여행사	현진여행사(대표)	이향숙	
11		올레투어(대표)	강성훈	
12		삼일여행사(실장)	임태원	
13		통역원	이창욱	

2.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5. 25.(토)	17:00~	• 승선 및 출항(동해→사카이)
5. 26.(일)	09:00~10:00	• 입항 및 시범운항 환영식전
	10:00~18:00	• 관광지 시찰
	18:00~20:30	• 시범운항 환영 리셉션(만찬)
5. 27.(월)	09:30~10:00	• 사카이미나토 시장 접견
	10:00~14:00	• 관광지 시찰 및 중식
	14:00~15:00	• 아웃바운드 전문여행사 의견교환회(이치바타트레블)
	16:00~18:00	• 출국 수속 및 승선
	18:00~	• 출항(사카이→동해)
5. 28.(화)	09:00~	• 하선 및 입국수속(동해항)

3. 일정별 세부내용

출장기간 : 2024. 5. 25.(토) ~ 5. 28.(화) / 2박 3일

출 장 자 : 13명(부시장, 시의원2, 항만물류팀장, 관광마케팅팀장 외 8)

출 장 지 : 일본 돗토리현

주요내용

가. 시범운항 환영식전

◦ 일시/장소 : 5.26.(일) 09:30~10:00 / 사카이유메미나토터미널(사카이항)

◦ 참 석 자 : 약 50여명

- (돗토리현) 지사, 지자체장(사카이미나토 시장 등), 경제단체, CIQ기관 등 28명

- (강 원 도) 강원도·동해시 대표단, 선사관계자 등 24명

◦ 내용 : 주최자 및 내빈인사 후 환영 퍼포먼스·기념촬영

- 강원도↔돗토리현 자매결연 30주년과 더불어 이스턴드림호의 복항을 기념하며 양국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도모

◦ 현장사진



나. 환영 리셉션

- 일시/장소 : 5.26.(일) 18:30~21:30 / 가이케 그랜드 호텔 텐스이(요나고)
- 참석자 : 약 90여명
 - (돗토리현) 부지사, 지자체 장사카이미나토 시장 등, 돗토리현의회 의원 등
 - (강원도) 강원도·동해시 대표단
 - (민간팸투어단) 선사, 여행사, 언론(방송, 기자) 등
- 내용 : 주최자 및 내빈인사, 동해시 관광 홍보자료 배포 및 홍보 설명
 - 강원도↔돗토리현 간 자매결연 30주년과 더불어 이스턴드림호의 복항을 기념하며, 양국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도모
- 현장사진



다. 사카이미나토 시장 접견

- 일시/장소 : 5. 27.(월) 09:30 ~ 10:00 / 사카이미나토 시청
- 내용 : 이스턴드림호 재개 기념 및 양국 지자체 우호 증진 및 문화적·경제적 교류 협력 도모
- 현장사진



라. 관광 분야 관계자 의견교환회

- 일시 : 5. 27.(월) 14:00 ~ 15:00
- 참석자
 - (동해시) 부시장(단장), 의원(2), 지역여행사(3) 등 13명
 - (사카이미나토) 산업부 관광진흥과 계장 요네무라 마사유키
 - (현지여행사) 이치바타트래블서비스* 이사 도이 마사아키

* 이치바타전기철도(일본의 교통회사)의 자회사
1955년 설립 / 시마네현 마쓰에시 소재 / 자본금 1억엔(한화 9억원)

◦ 주제 : 8월 일본 정기항로 취항에 앞서 양국 여행객 수요·선호도 및 여행상품개발 및 모객현황 등 의견교환

◦ 주요내용

<p>日→韓 방문 관광객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S훼리 운항시절 양국 지자체 공무원 교류 및 청소년 체육교류 등 선박을 활용한 교류활동 있었음 • 현재는 일본 일반 여객의 수요도 높지 않음. • 현재 이치바타트래블사에서는 선박을 활용한 학생 수학여행 및 기업 워크숍 등 단체 방문객 타겟으로 기획 중 • 그러나, 현재 예정 운항스케줄(주 1회)에 따르면 여행객이 선택가능한 여행스케줄 제공에 한계. • 또한, 일본 출발 운항 스케줄 상 6박 7일(일요일~토요일)의 일정은 일반적인 여행객이 선호하기 어려운 스케줄임 • 최소 주 2회의 선택가능한 운항스케줄 필요성 언급 • 동해항을 통한 한국방문 시 KTX등을 이용한 수도권이동 또는 인천~요나고 항공편과 연계한 기획 가능
<p>韓→日 방문 관광객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관광객의 일본항로 운항 재개 관심도 높음 • 주로 골프, 싸이클, 하이킹 관심의 여행객 다수 • 예정 선박 운임료(약 40만원/왕복)는 인천~요나고 노선의 항공편(약 20만원/왕복)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부담되는 수준 • 운항 스케줄 상 주말(토요일) 숙박 일정으로 한국인 여행객들의 여행경비 부담액 증가 우려 • 높은 선령을 고려하더라도 선내시설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임

◦ 현장 사진



4. 주요 성과

○ 일본항로 재개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 돗토리현(사카이) 항로 관계자·교류협력·여행사 등 양국 교류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이스턴드림호 재개 계기로 양국 지자체 우호 증진 및 교류활성화 도모

○ IN BOUND 여행객(일→한) 유치 홍보 활동 전개

- 이스턴드림호 시범운항 연계, 다양한 관광홍보 유치 활동 전개
 - 시범운항 촬영리셉션, 동해시 관광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공
 - 양 지자체 여행사* 참여 의견교환회 추진
 - * 우리시 : 현진여행사 외 2 / 돗토리현 : 이치바타트래블서비스(주)
- 관광교류협력 등 항로 활성화 방안 모색
 - 방일 대표단 외 민간팸투어단(여행사, 언론, 인플루언서 등)과 일본측 관계자 공동 리셉션 행사로 항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 추진

○ 일본항로 재개를 통한 한-일 바닷길 재개 가능성 및 의지 확인

○ 본격 항로 재개 전 시범운항 사전 정점으로 미비점(개선사항) 도출 계기

- 운임요금의 적정성 문제
- 선박 노후화로 인한 객실 편의성 저하
- 운항일정(스케줄) 한계성(제한)
- 부산(카페리), 요나고 등 항공편과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 등

붙임) 한-일 시범운항 관련 보도자료. 끝.

지역 20면

한·일 정기항로 재개 ... 동해항서 시범운항

25일 출항 - 돛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물적·인적 교류 시 대표단·렘투어단 방문 - 귀국길 日 관계자 등 동행

【동해】동해항을 모항으로 한 한-일 간 물적·인적 교류의 길이 다시 열릴지 주목된다. 동해시에 따르면 동해항이 모항인 카페리 이스턴드림호의 한-일 국제정기항로 재개를 위한 시범운항이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문영준 동해부시장, 동해시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동해시 대표단은 여행사 관계자, 인물투어 등 민간 렘투어단 27명과 함께 25일 이스턴드림호를 타고 동해항을 출발해 일본 돛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항은

한-일 국제정기항로의 성공적인 복원 및 정상화를 지원하고 양국 지자체의 우호 증진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표단은 26일 사카이항에 입항해 현지 환영식에 참가하고 사카이미나토시 시장 면담, 돛토리현청 관계자와의 의견 교환 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28일 동해항으로 귀국한다. 귀국길에는 돛토리현 상공노동부 관계자 10여명이 함께 울

라 관영식과 무릉별유원지 방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스턴드림호는 2021년 3월 한-러-일 국제정기항로 개설 이래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항을 운항해 왔으나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항로 개설 1년 만인 2022년 3월부터 일본 항로가 전면 중단됐다. 일본 항로 재개에 나선 시는 기항지를 기존 마이즈루항에서 사카이항으로 변경했다.

한-일 국제정기항로는 올 8월 초부터 주 1회 운항될 방침이다. 문영준 부시장은 "이번 시범운항은 4년 반 넘게 단절되었던 강원도-돛토리현 간 물적·인적 교류를 재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국내 최고 관광지로 각광받는 강원권을 비롯한 동해안권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영목 기자**

(25.2*8.7)cm

강원도민일보

2024년 05월 24일 금요일

인물 20면

한·일 국제정기항로 동해~사카이항 뱃길 열린다

내일부터 나흘간 시범운항 8월 초 주 1회 정식 운영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카페리 '이스턴드림호'의 한-일 국제정기항로 재개를 위한 시범 운항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23일 두원상선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운항은 25일 오후 동해항 출항, 26일 오전 사카이항 입항, 27일 오후

사카이항(사카이미나토) 출항, 28일 오전 동해항 입항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DBS사가 지난 2019년말 동해항~사카이항 운항을 중단한 뒤 2020년 4월 폐업한 바 있어 강원도-돛토리현 구간이 항로가 4년 반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두원상선은 2021년 3월 한-러-일 국제정기항로 개설 이래 동해항-일본 교토부 마이즈루항 구간을 운항해 왔으나 개설 1년 만인 2022년 3월부터 전면 중단돼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한-일 항로는 2년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번 시범운항 일정에는 정일섭 도글로빈부장, 최우홍 도 해양수산국장, 문영준 동해부시장, 이창수·안성준 동해시의원, 이석기 두원상선 대표이사, 한상운 두원상선 이사 등이 참여한다. 도민간 렘투어단 27명도 동행한다. 26일 현지 환영식과 환영리셉션이 진행된다. 히라이 신지 돛토리현 지사, 가메이 가즈요시 부지사, 다테 겐타로 사카이미나토시장 등이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강원도·동해시·두원상선 등의 일본 항로 재개 의지의 노력에 더해 돛토리

현이 적극적으로 항로 유치에 나서면서, 선사는 일본 기항지를 기존 마이즈루항에서 사카이항으로 변경했고, 오는 8월 초부터 한-일 국제정기항로를 주 1회 정식 운항할 계획이다. 문영준 동해부시장은 "이번 시범운항은 4년 반 넘게 단절되었던 강원도-돛토리현 간 물적·인적 교류를 재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내 최고 관광지로 각광받는 강원권을 비롯한 동해안권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동명**

(22.9*8.7)cm

전국매일

2024년 05월 24일 금요일

자치의정 11면

동해시, 중단 4년만에 한·일 국제정기항로 재개 나선다

동해항 모항 이스턴드림호 25~28일 시범 운항 8월 초 주 1회 정기운항...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강원 동해시가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카페리 이스턴드림호의 한-일 국제정기항로 재개를 위한 시범 운항을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해 경기 활성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는 한-일 국제정기항로의 성공적인 복원 및 정상화를 지원하고 양국 지자체의 우호 증진, 관광 교류 협력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영준 부시장 및 시의원 2명을 포함 13명으로 구성된 동해시 대표단 일행이 돛토리현 사

카이미나토시를 직접 방문한다. 대표단 일행은 연인인, 여행사 관계자, 인물투어 등 민간 렘투어단 27명과 함께 25일 출국, 26일 현지 환영식을 시작으로 환영리셉션에 참석한다. 이어 27일 사카이미나토시 시장 면담과 돛토리현청 관계자와의 의견교환회 등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28일 귀국하게 된다. 히라이 신지 돛토리현 지사, 가메이

가즈요시 부지사, 다테 겐타로 사카이미나토 시장 등 주요 인사들도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며, 돛토리현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관광홍보 의견교환회도 개최해 양국 간 관광 연계 상품 개발 등 실무 협력 논의도 추진한다. 동해시 대표단은 28일 돛토리현 상공노동부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동해항(이스턴드림호)을 통해 양국, 환영식에 이어 무릉별유원지 방문 및 요한 행사 등에 참석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3월 한-러-일 국제정기항로 개설 이래 이스턴드림호는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항을 운항해 왔으나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항로 개설 1년 만인 2022년 3월부터 일본 항로가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일본 항로 재개를 위한 동해시의 의지와 함께 적극적으로 항로 유치가 나선 돛토리현의 노력에 선사는 일본 기항지를 기존 마이즈루항에서 사카이항으로 변경했으며 오는 8월 초부터

정식으로 한-일 국제정기항로를 주 1회 운항하게 된다. 문영준 부시장은 22일 "시범 운항으로 강원권을 비롯한 동해안권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해시/이교황 기자 lee@ecomm.co.kr**

(28.8*10.5)cm